

# LA한인타운, 홈리스 민원 최다 연방정부, 문제 해결 나선다

LA한인타운의 홈리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LA한인타운은 홈리스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최근 LA시에 따르면 LA시가 운영하는 민원서비스인 'MyLA311'에 접수된 지난해 민원 중 홈리스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한인타운에 해당하는 집코드 90004, 90020 지역이었다.

민원의 내용은 홈리스로 인한 악취 및 오물 쓰레기 투기, 텐트 집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었다.

MYLA311의 조애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홈리스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LA시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다.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강제 퇴거 명령(court order)을 내린다."며 "민원 처리 기간은 최대 90일이다."라고 설명했다.

MYLA311 민원 접수는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LA시 노숙자 문제 해결에 연방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서에 연방 정부가 재정 및 시설 지원에 나서 LA 등 캘리포니아주 노숙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나서 LA 등 거주 지역 노숙자를 위한 쉼터 건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방 정부 측은 'LA 도심 연방정부 건물 활용, 새로운 임시 쉼터 건립'을 해결책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보건복지부(DHHS)도 보건 인력을 파견해 노숙자 위생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관련 예산 확보 등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LA지역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 한인 건강 증진 위한 '무료 건강 박람회'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무료 건강 박람회가 열린다.

한미 메디컬 그룹과 굿사마리탄 병원,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은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굿사마리탄 컨퍼런스 센터(637 Lucas Ave., LA, CA 90017)에서 제 23회 한인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노년의 위대한 인생 도전기'라는 주제로 실버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자궁암과 골반, 전립선암 검사, 당뇨수치, 혈압 측정, 시력검사, 콜레스테롤, 폐활량, 뇌졸중, 정형외과적 검사, 하지 정맥류 검사, 백내장·녹내장 검사,

시력·청력 검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는 노인들을 위한 균형 검사도 추가됐으며 18살 이상 참석자들은 독감 예방 접종도 할 수 있다. 전문의와 1:1 상담도 가능하다.

행사에는 95명의 의료진과 80여 명의 자원봉사자, 통역사 등이 참여한다. 소득과 신분,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주차는 굿사마리탄 병원 건너편 월셔와 루카스(Lucas) 에비뉴 코너에 위치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문의: (213) 977-2121 ext 2  
(굿사마리탄 병원 한국어 서비스)

# 캘리포니아주 의회 '한글날' 제정 한국 밖 최초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지난달 30일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는 결의안(ACR 109)을 가결(관련 기사: 본보 1280호 16면 '한글날' 지정 결의안 거주 하원 통과...상원 무난 통과 전망)한데 이어 상원도 지난 9일, 이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주지사의 서명 없이 즉시 발효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Hangul Day)'로 기념한다.

이 결의안은 거주 하원 새런 쿼크-실바 의원(65지구, 민주당)과 최석호(68지구, 공화) 의원, 미셸 산티아고(53지구,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새런 쿼크-실바 의원의 박동우 보좌관은 "미국에서 소수민족의 언어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생긴 것은 한글이 유일하다."며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 통과는 한인 2세·3세들의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안전보장국이 시민들로 하여금 배우기를 권장하는 5개 언어 가운데 하나이다. 또 대입을 위한 제2외국어에 포함된 10개 외국어 중 하나로 현재 미국에서만 5만 명 이상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

ACR 109는 애초 결의안 번호가 ACR 105로 지정됐으나 한글날을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일부러 결의안 번호가 ACR 109가 될 때까지 제출을 미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럭키타이어

# 한국타이어 가을 대 세일

타이어 구매 리베이트 받으세요.



기간: 8/31~10/13



NEW TIRES OIL CHANGE BRAKES

(714) 530-2301

13128 Magnolia St. #A Garden Grove, CA 92844

